

# 第 8 次 FORATOM 大会 参觀報告記

呂 聖 源

(韓國原子力産業會議 部長)

## FORATOM 大会의 성격

FORATOM 大会는 欧州原子力産業會議 聯合體 (Forum Atomique Européen=FORATOM 으로 略稱)가 3 年마다 14 개 회원국에서 순차로 개최하는 원자력회의로서 금년이 8 차회의가 된다.

FORATOM은 1960년 파리에서 창설되었고 회원은 EEC 9 개국가중 에이래를 제외한 8 개국가와 비EEC국인 6 개국(오스트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등 14 개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대회는 주제 「구주와 세계에 있어서의 원자력」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FORATOM 의 中樞國家인 프랑스가 1981년 5월, 그동안 미국 Westinghouse 社와 연계되었던 원자력면허협정 (license agreement)에서 독립하여, 세계시장 진출에 독자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의 것처럼, 구주원자력계의 독자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FORATOM 國家가 세계원자력무대를 향하여 공헌과 협조를 약속하는 토론장을 마련코자 의도한 것이 특색이었다.

따라서 회원국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등 17개 비회원국가를 포함하여 세계 31개국에서 618명과 동반부인 144명 도합 762명이 참가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발표자로 초빙되어가신

成樂正 韓電社長 등 5 명이 참가하였다. 국가별 참가자수는 표 1 과 같다. 참가규모로는 주최국 스위스 127명을 선두로 프랑스, 서독, 미국 순으로, 원자력 선발국에서 많았고, 특히 흥미를 끈 것은 공산권인 유고슬라비아가 소련과의 원자력협력관계를 발표한것과 비원자력국인 쿠웨이트가 참가한 것이며 中共은 당초 6월24일 제 6 Session에서 「中共이 指向하는 세계원자력 국가와의 협력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도록 계획되어, 프로그램에 인쇄, 배포되었는데,



우리나라 참가단 일행(오른쪽부터 최장동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부장, 고중명 현대건설 부사장, 성낙정 한국전력공사 사장, 성낙상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필자)

밝혀지지 않는 이유로 한명의 대표도 보내지 않아, 주최측에는 당황과 유감을, 참가자들에게는 실망을 안겨 주었다.

表1 FORATOM회의 참가자 통계

국 별	참가자	동반자	합 계	비고
아르헨티나	1		1	
오스트레일리아	1	1	2	
오스트리아	6	1	7	
벨기에	29	5	34	
브라질	4		4	
캐나다	9		9	
덴마크	5	3	8	
서독	62	14	76	
핀란드	14	4	18	
프랑스	100	22	122	
인도	1		1	
이라크	1		1	
이란	2		2	
이스라엘	1		1	
이탈리아	30	1	31	
일본	27	1	28	
한국	5		5	
쿠웨이트	1	1	2	
룩셈부르크	1		1	
멕시코	2	1	3	
네델란드	6	1	7	
노르웨이	1		1	
포르투갈	1		1	
스페인	32	15	47	
스웨덴	34	14	48	
스위스	127	19	146	
터키	1		1	
영국	66	20	86	
미국	46	20	66	
베네수엘라	1		1	
유고슬라비아	1	1	2	
계	618	144	762	

대회일정 및 의제

1982. 6. 20~24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대회는 「구주와 세계에 있어서의 原子力」이라는 主題하에서 세계의 에너지 정세, 원자력 기술의 현상과 전망, 安全性문제, 핵연료사이클의 국제간 협력문제,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자력 개발, 원자력무역, 국제협력의 유형등 원자력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원자력계 인사가 발표와 토론에 참가하였다. 여기서는 일정과 주제 및 발표논문제목만 소개하겠다.

(註: 논문원본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으므로 필요하신분은 신청바람)

이번대회의 주역들인 좌장, 발표자, 토론자들의 국별통계는 表2와 같다.

6月20日(日): 환영리셉션

6月21日(月): 開幕式

Opening Session

- 80年代의 에너지排戰과 國際經濟展望(프랑스)
- 다른 에너지源과 比較한 原子力에너지의 환경문제(영국)
- 原子力과 与論: 심리적, 이념적, 사회적 및 정치적문제(스위스)
- 에너지와 제3세계(서독)

2nd Session: 原子力技術의 現狀과 展望

- 세계의 경수로: 기술 및 경험(프랑스)
- 重水炉(독일)
- 가스 冷却炉 概觀(영국)
- 高速增殖炉, 90년대의 에너지 목표(이탈리아)
- 小型原子炉(스웨덴)

Workshop on 'How Safe is Safe Enough?'

6月22日(火)

3rd Session: 核燃料사이클에 있어서 國際協力.

- 对西欧 우리들의 안정적공급, 確保는 가능한가? (벨기에)
- 供給者의 立場에서 본 세계우리들시장 (캐나다)
- EURODIF/COREDIF-現在와 将来(프랑스)
- URENCO CENTEC : 國際協力에 있어서 成功的企業(네델란드)
- UF<sub>6</sub> 생산과 핵연료 성형가공(영국)
- 再處理 : 現況과 展望(프랑스)
-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選擇과 규제(스위스)

**6月23日(水)**

**4th Session: 開發途上國은 先發原子力 國家로부터 무엇을 期待하는가?**

- 原子力發電 : 實現을 위한 出發(쿠웨이트)
-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原子力の 導入(멕시코)
- 韓國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과 現況(한국)
- 印度의 원자력 발전소건설계획-自給自足を 위한 試圖(인도)

**5th Session : 原子力交易 : 範圍와 制限**

- 核武器 非擴散과 國際保障措置 (IAEA)
- 美國의 核武器 非擴散 政策(미국)
- 歐州 非核保有國의 立場에서 본 核非擴散문제(스페인)
- 아르헨티나가 본 核非擴散정책(아르헨티나)
- 變遷하는 世界市場에 있어서의 원자력발전산업(서독)

**6月24日(木)**

**6th Session: 國際協力の 模型**

- IAEA 體制속에서의 국제협력 (IAEA)
- 원자력기술분야에 있어서 핀란드와 소련의 협력(핀란드)
- 고속증식로에 관한 歐州의 協力(프랑스)

- 브라질과 서독의 원자력협력(브라질)
- 유고슬라비아의 원자력발전소개발계획(유고슬라비아)

表 2 좌장, 발표자, 토론자 국별통계

구 분	좌 장	발표자	토론자	리포터	계
스 위 스	1	2	1	4	8
프 랑 스		5	2	1	8
스 웨 덴	1	1	3		5
영 국		3	2	1	6
서 독	1	2	2		5
네 델 랑 드	1	1			2
이 탈 리 아		1			1
카 나 다		1	1		2
한 국		1			1
미 국		1	3		4
덴 마 크	1				1
벨 기 에		1	1		2
스 페 인	1				1
쿠 웨 이 트		1			1
멕 시 코		1			1
일 본			3		3
인 도		1			1
오 스트 리 아		1	1		2
합 계	6	23	19	6	54

**한국전력 성낙정사장의 발표**

이미 밝힌바 처럼 중공이 불참하였고 일본은 토론자로서만 참가하였기 때문에 인도를 제외한다면 아시아에서 유일한 발표자가 된 한국대표 성사장은 6월23일 제 4 Session에서 「한국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과 현황」이란 주제로 연설하였다.

논문내용은 이번호에 게재되었거니와 첫째,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침체상태에 있는 원자력개발계획을 한국이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

둘째, 원자력건설 경험에서 처음에는 터키방식에서 출발하였으나, 국산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와관련된 KNE(현재의 KOP EC), 한국중공업, 현대건설, 동아건설의 역할까지를 강조 說明한점.

세째, 앞으로도 원자력기술 협력을 위하여 Foratom을 위시하여 모든나라와 협력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점등이 이번 FORATOM大会 주제와 일치하여, 특별히 많은 공감과 호응의 박수를 받았으며, 특히 질의 응답에서 성사장의 평소대로의 솔직한 답변이 서구사람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여, 연설후에 축하 인사가 쇄도하였고, 오찬회등 공식, 비공식 모임에서 가장 중심 좌석이 되었다.

大会顛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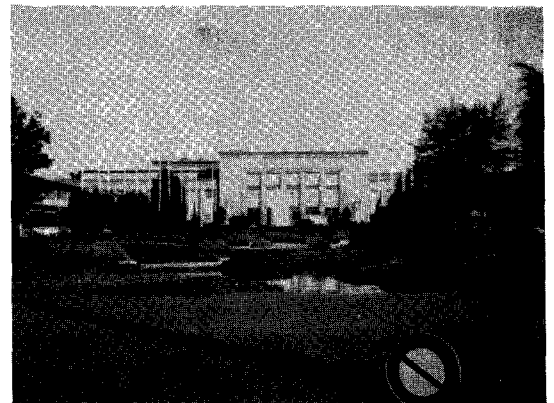
소련권을 제외하고 세계 3대 원자력산맥 (미국, 일본, FORATOM국가집단)의 하나인 FORATOM의 8차대회에 참가하기위하여 쾰리히, 제네바를 거쳐 로잔느에 도착한것은 6월20일 오전11시경이었다. 앞으로 한국원자력계에서도 太平洋沿岸国 會議를 개최하게 되었으므로, 사무국에서도 참가하여 배우고오라는 金榮俊會長님의 特別命令과 배려로 일본과 미국밖에 가본적이 없는 필자가 잔뜩 긴장하여 제네바공항에 내렸을때, 공항의 출입국 관리가 10초미만으로 여권검사를 끝내주고, 세관검사는 일체하지도 않아, 우선 스위스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제네바공항에 별다른 환영표지는 없었으나, 참가자에게 미리 우송해준 교통안내서에 촌보도 틀림없이 버스가 정시 운행되고 있어서 「픽·업」할 사람이 없는 동양인도 불편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초여름의 날씨인데도 멀리 산위에는 눈이 덮혀 있고 그밑에는 10m이상의 숲이 절벽처럼 무성하고 아름다운 호수가 수없이 산재하여서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특히 나중에 느낀것이지만 「인심이 정직」하고 여유있어서, 「나무와 호수와 정직」은 과연 작은 나라가 세계소년들의 동경의 나라가 되기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등록** 몇일후에 이번 대회 사무총장이며 스위스원자력산업회의의 사무국장인 Dr. Feuz를 만나서 실감한 사실이지만 2년반전인 1979년도 가을에 대회개최권을 위임받은 스위스 원자력산업회의는 국제회의 개최의 명수답게 그 준비와 진행에 솜씨를 발휘하였다.

세계 각국, 특히 공산권까지도 참여시키기 위하여 2년전부터 발표자 선정을 시작하였고, 공식 접촉보다 주로 FORATOM 임원들의 개인친분을 통하여 활동하였다고 한다. 초청안내서도 1년전부터 각국 「원자력산업회의」기구를 통하여 무려 15,000部 이상을 발송했다는 것이다. 그결과 6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원자력 정보교환은 물론 사고와 스위스 풍물의 관광까지 빈틈없는 프로그램으로 대회기간을 바쁘고도 즐겁게 보낼수 있었다. 스위스 원자력산업회의는 10만 프랑 이상의 흑자를 내고도 500명이상의 親스위스 인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예약된 호텔에서 안내계의 친절한 접대를 받고 서둘러 로잔느시 서북쪽 언덕에 자리잡은 회의장 「Palais de Beaulieu」에 가니, 우리나라 덕수궁 미술관과 비슷한 회의장 건물은 몇세기전으로 역류한 것과 같은 복고풍이며, 앞에는 1000평이 훨씬 넘는 정원이 꽃으로 수놓였고, 그 가운데 분수가 시원하다.

입구에 들어서니 오른쪽에 50평정도의 접수대에 10여명의 사무국 여직원이 웃음으로 맞아



회의장 「Palais de Beaulieu」

준다. 참가신청접수증을 보이니, 한여직원이 "Pigeon Hole"이라고 命名된 私書函에서 한아름의 배당물을 준다. 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가방
2. Final Program
3. 로잔느시 안내도, 관광안내도
4. 시내교통기관 무임승차권
5. 오찬, 만찬 참가권
6. 산업시찰, 관광참가권
7. 제 1日 논문
8. 질문지(양식)
9. Badge

하나 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는데 필자의 관심을 끈것은 Badge와 무임승차권이였다. Badge의 기능은 한마디로 「No Badge / No entry」이다. 입구와 강당입구에 정복경찰이 배치되어 Badge가 없는 사람은 출입금지다. 이기회를 놓칠세라 모여든 세계원자력 공급회사들의 Hospitality Suite 관리인은 물론 기자들, 사무국 직원까지 Badge를 착용하여, 대회진행을 조용하고 빈틈없이 할 수 있었다. 다음 시내교통기관 무임승차권인데, 워낙 시내교통기관 路線이 잘 짜여진 이유도 있으나, 대회기간중 택시의 비싼 요금을 물지 않고도, 전 시가를 누빌수 있었다. 여기서 스위스시민의 정직성에 대하여 밝혀줄 이야기가 있다.

버스승차에 관한 이야기이다. 모든 교통기관은 안내원없이 운전기사만이 운행하는데 앞문은 현금승차, 뒷문은 승차권을 가진 사람이 탄다. 운전석에서 뒷문이 잘 보일리도 없으나, 아무리 보아도 속이는 사람 없이 모두 승차권을 통속에 빠짐없이 넣고 있다. 과연 운전기사가 감시할 필요없는 정직한 국민이라는 경의와 놀라움이 가슴을 찡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도덕 수준은 언제 저렇게 될까?

다음 서류를 배포하는 사서함의 기능인데 모든 배포물은 이곳을 통하여 배포하기 때문에 시간절약, 혼잡이 없고, 또 개인간의 서신도 이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 접촉과 초대에 많이 활용되었다.

사무국 앞에는 관광회사와 항공사에서 파견 나와 예약, 확인, 심지어 귀로 행선지의 호텔예약 까지 하고 있어서 모든 불편을 덜어 주었다.

**리셉션** 전야제인 리셉션은 본회의장 앞 150명 규모의 복도에서 베풀어졌는데 로잔느시 고등학교 악대의 연주속에 약 500여명이 참가하였다. 원자력계 신·구편들이 인사를 나누었는데, 성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한국참가단에는 역시 미국, 스위스, 프랑스 인사들이 그룹을 이루어 인사를 교환하였다. 음식준비는 극히 간소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국제회의때 호화스러운 것보다는 한국음식의 특성에 맞게 알차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회식** 6월21일 9시30분 로잔느시 경찰악대의 연주에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600여명이 참석하여, 스위스원자력산업회의 회장, FORATOM 회장, 로잔느시시장 순의환영사가 있었고, 스위스 에너지장관의 개회사가 있었다.

특히 FORATOM 會長 A.Colomb씨는 "과거 구주원자력계의 성장은 미국측에 힘입은바가 많았으나, 이제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을 세계각국에 되돌려 드리겠다"라고하여 FORATOM 대회의 성격을 천명하였다. 개회식은 원자력회의 중에 가장 원자력회의답지않은 순서라고 느낄만큼, 화기와 축제분위기가 넘쳤는데, 이것은 주최측에서 투자를 많이 한것이 아니라 경찰악대의 스위스 민요연주와 잘짜여진 연단의 배열과 조명미스로 충분한 효과를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인상을 압축할 수 있는 국악연주를 고려해볼만 하다.

대회장은 우리나라 시민회관 좌측회의장과 같고 다만 좌석은 원형이 아닌 전향 배열로 본석 384석과 방청석(책상이없음) 300석이 좌우로 배치되었다. 연단의 배열은 우측으로부터 발언대, 좌장, 발표자, 토론자 순이고, 슬라이드용으로 중앙에 대형스크린 그리고 우측에 휴대용 스크린 2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동시통역** 영어권외의 발표자, 토론자가 많아서 영어, 불어, 독어 3개국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었는데, 국제회의의 경험이 많아서인지 통역은 1급이었다. 토론자의 발언내용은 원고배포가 없었는데도 전체가 잘 통역되고 있었다.

**강연회진행** Session 의장은 주로 FORATOM 가맹국에서 담당했고 주제발표자, 토론자는 세계 각국을 망라하려고 배려한 점이 눈에 띄었다. 表 2에서 보는바와같이 발표자가 없는 국가에서는 토론자로서 참여 했는데, 일본에서는 토론자만 3명참여했다. 발표자는 15분~20분, 토론자는 5분정도의 시간을 소비하였다.

특기할 것은 Session Reporter 의 역할인데 각 Session마다 1명씩 마지막 순서에 나와서 각발언자, 토론자, 질문까지를 요약하고 평가하여 결론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이 대단히 돋보였는데, 주로 주최측에서 담당하였다.

**Hospitality Suite** 폐쇄적인 소련권을 제외한 미국, 일본, 구주, 원자력 3대 산맥에서는, 매년 세계적인 원자력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매년 이번대회 정도 이상으로 성황을 이룬다. 원자력회의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참가자가 많은가? 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시한번 그 뜻을 확인하고 싶었다.

첫째, 원자력산업에는 王道가 없다는 점이다. 세계최초로 美国의 Shipping Port(6만kW級)가 商業發電運輸을 시작한 이래 겨우 25년에 불과한 원자력발전사는 현대과학 기술의 尖兵답게, 원자로의 기술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그 규모도 20万~30万kW級에서 60万, 90万, 130万kW級으로 大型化하면서, 一方으로는 小型炉의 研究가 꾸준히 進行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롭고, 다른 정보를 빨리 습득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伝流의 영국이 GCR를 고집하다가 세계원자력시장에서 고립된 예가 그 反証이다. 이제 영국도 PWR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 20년의 我執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에서 밀려난 것이다.

둘째, 원자력개발에 있어서 건설, 운전에는 그 경험이 매우 귀중하다. 따라서 선발 발전소의 모든 경험을 조속히 습득, 소화하여야 하고, 선

발 발전소에서도 신설발전소의 경험을 다시 배워야 하는것이 원자력개발과 운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자력회의는 항상 많은 참가자가 운집하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은 know-how에서 사고경험까지를 배우는데도 막대한 투자와 기술인력이 필요하므로, 국제회의는 세계원자력관련회사들의 前哨시장이 된다. 이번대회에서는 회의장 3층에 14개업체가 Hospitality Suite를 설치하였는데 명단은 表3과 같다.

表 3 Hospitality Suite개설업체

업 체 명	국 명
AECL	카 나 다
ASEA-ATOM	스 웨 덴
BBC	스 위 스
Babcock Power Ltd.	영 국
GEC Energy Systems Ltd.	"
National Nuclear Corp Ltd.	"
Northern Engineering Ind. Ltd.	"
Scientific Instru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
Electrowatt	스 위 스
Eurodif	프 랑 스
Framatome	"
General Electric	미 국
Kraftwerk Union	서 독

각업체는 4평정도의 응접실을 마련하여 방문객에게 음료와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는데, 손님유치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서함을 통해서 초청장을 보내고 있었으며 필자에게도 5개업체에서 초대장을 보내왔다.

**午, 晚餐食** 참가자들의 친목, 사고를 위해서 마련한 오찬(2회), 만찬에는 300명이상이 참석하였는데 본인부담으로 오찬비는 28~30프랑(10,000~13,000원)이었고 만찬비는 95프랑(약 35,00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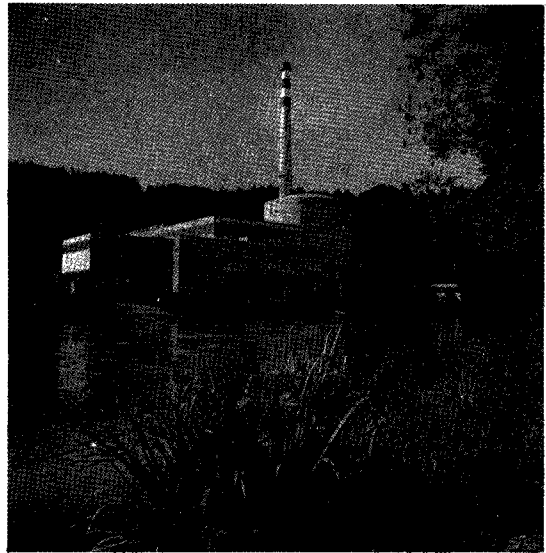
**산업시찰** 원래 계획에는 프랑스의 유명한 고속증식로이며, 준공이 임박한 1,200MW級 Su-

per Phenix 를 포함해서 발전소, 연구소등 7 개 코스를 준비했으나, Super Phenix 와 스위스의 Muhleberg 원자력발전소 2 개코스만 시찰지망이 많았을뿐, 기타 5 개코스는 지망자가 10명 미만이어서, 주최측은 “Cancelled due to insufficient interest”라는 광고로 대회전일에 취소시켰다.

가장인기는 역시 Super Phenix 로 50명정원에 150명이상이 희망했으나, 선착순으로 50명만 참가시켰다. 필자는 스위스 Muhleberg 원자력발전소 쪽에 합류하였다. 참가비는 전자가 50프랑 (18,250원), 후자는 35프랑 (13,000원)이었다.

로잔느시에서 서북방 1시간 (버스) 거리에 있는 이 원자력발전소의 시찰단은 42명이었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보안에는 철저하여 여권 또는 신분증을 휴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사진기등 일체휴대품을 발전소 정문에 마련한 보관함에 보관하고 열쇠만 주었다. 6명씩 1단으로 묶어 불, 독, 영어 사용 안내자가 각각 인솔하였는데 출입통제가 우리나라 고리원자력발전소보다 더 엄격한데 놀랐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송아지만한 군용견이 금방 습격할 태세로 노려본다. 79년도부터 안전전문가의 건의로 경비원을 증원하고 군용견을 10마리 배치하여 24시간 경비근무에 임한다고 한다. 50세의 보수주임 Mr. Florin 의 안내자세도 훌륭하여, 친절하면서도 각방의 차폐문을 통과할 때마다 인원점검을 하고 마지막 피폭량측정기앞에서는 지나칠만큼 바른자세를 요구하여 안전수칙에 철저한데 오히려 호감을 갖게되었다. 320MW의 BWR인 이 발전소는 美国 GE에서 원자로를 설치하였고 스위스의 BBC가 2차계통을 담당하여 1972년에 준공하였는데, 1972년이래 10년간 이용율은 최저 80.4%, 최고 91.6%로서 년 4주간 정기보수를 위해 운전중지를 한다고 한다. 부하율은 최저가 69%, 현재는 87.6%를 유지하고 있었다. 근무인원은 180명, 핵연료장전량은 48t으로古屋 1호기와 같은 량이다. 정기보수시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에 원자로 내부의 각종



Mühleberg원자력발전소 전경  
(BWR, 320MW)

Nozzle 부분이라고 한다. 이는 BWR과 PWR의 차이점이라고 볼수있다. 직원용 사택은 없고 40분거리의 마을에서 통근하는데 별 불편이 없고 근무에 만족한다고 한다.

**관광코스** Social Program 이라고하는 관광코스는 古城, 山行, 船遊 등 무려 12개코스를 마련했는데 비용은 최저가 로잔느 시내관광 15프랑 (5,500원), 최고가 제네바호수 船遊 100프랑 (36,500원)인데, 각코스마다 인기가 있었고 100프랑의 船遊코스는 2일전에 만원사절이 되었다.

산업시찰은 사무국에서, 관광프로그램은 여행사에서 각각 취급하였는데 이는 발전소출입 관계 때문이라고 했다.

**Public Acceptance** 로잔느에서도 파리의 거리 처럼 노상카페가 시민의 휴식처이다. 남녀노소가 일과시간이 지나면 카페에 와서 한잔의 음료로 대화도 하고 햇빛도 즐긴다. Warner Electric 회사에서 체육시설공사, 計時장치 전문가로 아프리카 여러나라를 돌아왔다는 Mr. Epiny와 로잔느 전기케도회사에 다닌다는 신사부부를 이 카페에서 만나 망중한을 즐겼다. 원

자력회의에 왔다는 필자의 소개에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한 설비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전기기술자인 청년도 원자력발전소가 자기고장에 서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이번 FORATOM대회에서도 安全性문제를 특별히 Workshop 시간으로 마련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다. 先發국인 美国에 있어서도 反核=原電建設反對로 오해하는 국민이 많고, 이러한 현상은 구주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Workshop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으나, 原電開發은 安全性보다 必要性和 經濟性에 依해서 判斷할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최근 일본에서 발전소 신·증설등에 찬성하는 里長에게 불신임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있는등 외국에서의 예를 피안의 불로 볼것이 아니라 원자력산업계에서 국민홍보에 더욱 주력해야 할 必要性을 절실히 느꼈다.

**Dr. Feuz와 한시간** 태평양연안국회의 준비를 위하여, 대회의 사전준비와 진행을 점검하라는 임무 때문에 FORATOM 사무총장에게 면담신청을 하였다. 면담 신청 메시지를 보낸지 한시간후에 여직원이 회의장까지 찾아와서 내일 오후 2시에 만나자는 연락을 가져왔다.

정력적인 40대의 사무총장 Dr. Feuz는 인상처럼 모든 일에 열심이다. 그 바쁜 대회일정중에도 한국의 사무국직원을 위하여 한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다음은 면담을 통하여 알려진 대회준비의 이면 이야기이다.

제8차 FORATOM대회를 스위스에서 개최키로 통보받은 것은 1979年9月이었는데 큰 도시를 물리치고 로잔시로 결정한 것은 도시의 아름다움과 외국인에게 흥미있는 도시라는 관광의 견지에서이다. 대회준비기구로는 FORATOM 가맹국에서 각 1명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活用되었는데 위원은 각각 14명이다.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발표주제와 발표자 선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섭은 비공식 통로를 활용하였다고 한다. 집행위원회는 대회조직, 장소, 진행준비를 맡았으나 실제 위원회 활동은 별로 기대할수 없었고, 스위스원자력산업회의에서 재정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위임받아 사무국장의

책임하에서 진행시켰다.

財政은 총경비를 40만프랑으로(약146,000,000원)으로 추산했으며, 그중 대회찬조금으로는 안내 및 프로그램에 광고를 게재한 FRAMATOM E社등 13個原子力業体에서 15,000프랑의 프로그램 인쇄비를 부담한 것외에는 전액 참가등록비에서 충당하였다고 한다. 참가등록비는 850프랑인데 FORATOM 本部役員 10명미만이 免除되었고, 이들의 숙박비도 주최국에서 부담하였다고 하나, 필자가 계산한 등록비 수입은 기일전 등록자(750프랑)의 할인까지 계산해도 50만프랑을 상회하여 결국 10만프랑(약 3,650만원)의 흑자대회를 치룬셈이다.

호텔은 1981년 1월(16개월전)에 예약했는데 26개를 예약하고 A급 3개, B급 23개로서 A급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서린, 코리아나 호텔 정도였다. 좌장과 발표자를 한 호텔에 투숙시켜 사전접촉이 가능하게 한것은 좋은 배려였다. 論文의 配布는 到着이 지연되어, 当日分을 当日아침 배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報文集의 發行은 여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워 볼때 欧州쪽에서는 事後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發刊계획이 없으나, 美国과 日本쪽에서는 需要가 많다고 알기 때문에 韓國의 PBC 때는 고려해 봄직하다고 권고했다.

Hospitality Suite는 원계획에는 없었으나, 業体側에서 要請이 많아 許諾한 것이라는 說明이다.

산업시찰계획은 주최측으로는 엄선했으나 너무 많은 코스로 分散시켜 한두곳을 빼고는 興味를 끌지못하여 不得已 大会前日 취소하고, 대상이된 연구소, 발전소에 유감의 뜻을 표하느라고, 혼이났다는 이야기다. 국제대회의 명수인 스위스 사람들도 실수할 적이 있느냐고 하니 박장대소를 한다. FORATOM 소개 책자를 우편으로 송부하겠다는 말로 이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귀국후 7일만에 FORATOM Brochure를 받고, 큰 대회뒤에 숨어서 정력적이고 부지런하게 회의진행을 지휘하는 그의 모습에서 스위스 국민의 저력을 보는 것 같았다.